



박소현의 섹.시.토크

K의 남편은 섹스가 끝나면 뒤통수를 때리는 거야. '좋아? 싫어? 왜 대답 안 해?' 이렇게 안달 난 사람처럼 계속 묻는 거 있지. 지금은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섹스도 하기 싫을 정도야."

K는 남편 흥을 보았지만 또 다른 친구 Y는 그런 K를 몹시 부러워했다. Y의 남편은 K의 남편



과는 정반대의 타입이었기 때문이다. 평소와 과묵한 그는 잠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오늘밤 어떠한가? 의견타진 같은 것도 없다.

타입이었다. 대신 잠자리에 들기 전에 Y를 꼭 껴안아주는 액션으로 자기 만족도를 대신 표현했다.

"난 귀에 딱지가 앉아서 좋아지잖아? 정말 좀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 서로 의견을 교환해 가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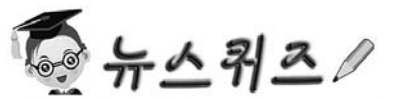
"니들은 하기라도 하지 쉬지 않고 물어봐도 좋고, 임 한번 안 열어도 좋으니까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하는 게 진짜 관계 아니니?" Y의 말에 K가 고개를 흔들었다. "의견교환도 정도껏 해야지. 무슨 협상 테이블에 앉은 것도 아니고 물건 흥정하는 것도 아니면서 계속 너는 지금 어떠한가 물어대니 흥분할 여력이 없을 정도야."

말 많은 남자와 과묵한 남자 사이

이고, Y는 정말 좀 물어봐서 하자고 부탁하면 그만이지만, 두 사람 모두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불만을 말로 표현할 경우 깨어질 조그만 경화가 두려운 것이다. 아니 그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것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러한 K와 Y의 고민에 해법을 찾는 또 다른 친구가 있었다. 친구 S는 한 마디 말로 그녀들의 불만을 순식간에 잠재웠다. "그래도 니들은 섹스를 하더라도 하지. 나는 남편 등만 보고 산지 벌써 두 달이 넘었어. 질문을 쉬지 않고 해도 좋고, 임 한번 안 열어도 좋으니까 일단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75.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이 최근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감독은 지난달 29일(이하 한국시간) 일본과의 2007 아시아인콕축구 3-4위전을 마친 뒤 "대한축구협회에 이번 일본전을 마지막으로 계약을 끝내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 ① 배여백 ② 알렉스 퍼거슨 ③ 거스 히딩크 ④ 세를 귀네스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 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상삼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동파르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 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3일(음 6월 22일 己丑)

Table with 12 rows representing zodiac signs and their corresponding fortune for the day. Each row includes a zodiac symbol, a brief description of the day's luck, and a '행운의 숫자' (lucky number).

검색절정 키워드

지난 1일 개봉한 심형래 감독의 SF 블록버스터 영화 '디워'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개봉 첫 날 41만 7천명이 몰려 올해 한국영화 중 개봉 첫 날 최대 관객수를 기록했다는 점과 '할리우드 못지 않은 화려한 컴퓨터 그래픽' 등의 평가가 잇따르면서 공식 홈페이지 및 예고 동영상상을 보려는 네티즌이 많았다.

쇼(SHOW)의 영상 광고도 표절 논란이 일면서 네티즌들의 클릭 세례를 받았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동영상 코너에 올라온 'KTF Show 소 CF 외곽광

안젤리나 졸리, 결국 벗었다

고 모방?'이라는 제목의 44초짜리 동영상 때문이다. 최근 가입자 100만명을 돌파한 KTF의 3세대 이동통신 브랜드 '쇼'의 '쇼 곱하기 쇼는 쇼'라는 애니메이션 광고와 '외국 광고'의 전개 방식이 비슷하다는 것을 비교해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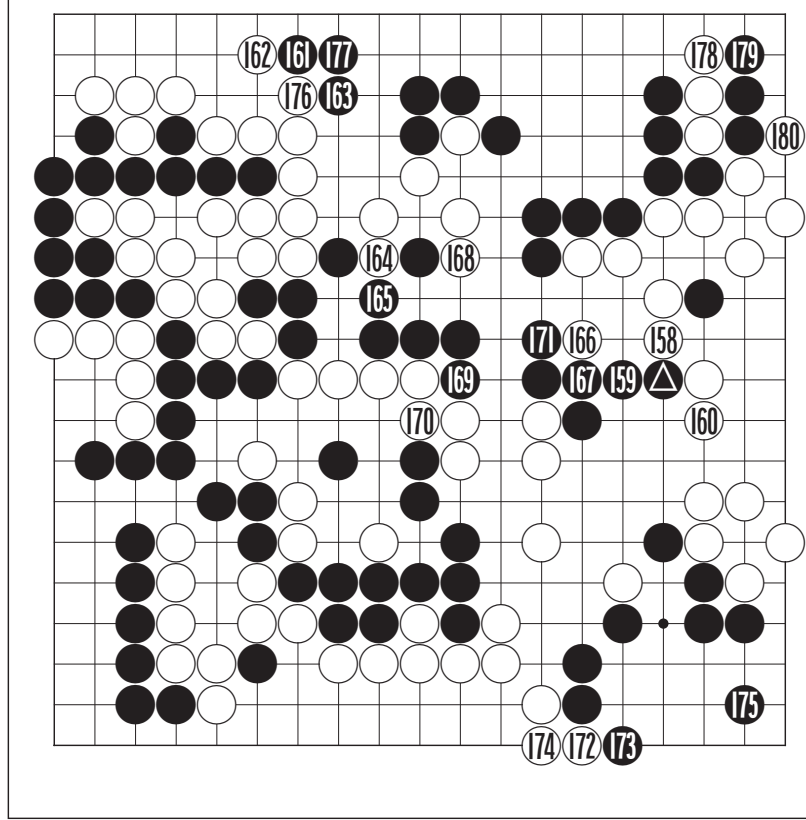
배우 한채영이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있습니까'라는 영화를 통해 파격적인 전라 노출 베드신을 공개한 뒤 노출신을 보려는 네티즌들이 몰리면서 예고

편 동영상상이 인기를 끌었고 배우 안젤리나 졸리도 SF 영화 '베오울프' 예고편에서 누드가 공개되면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도올 김용옥씨의 막내딸로 컬럼비아대 불문학과를 졸업한 뒤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계 사진작가 김미루씨를 미국 뉴욕타임스가 집중 소개했다는 내용도 인터넷을 달궜다.

배우 양미라의 동생이자 베이비스리브의 멤버로 활동중인 양은지(23)와 축구선수 이호(23)가 열애 중이라는 소식이 화제가 됐다.



황금색 바디페인팅으로 중요 부위만 가린 안젤리나 졸리의 누드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와 네티즌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배워들만한 묘수 8보(158~180) 白 이창준 5단 ((주)수림) 黑 최한용 5단 (조선대) 흑 ▲는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불일수인데 이창준 5단은 이미 우세를 확신하고 백 158,160으로 철저하게 압박수비를 펼치고 있다.

바둑소식 윤현석, 입단 18년만에 入神 윤현석이 입단 18년 만에 9단이 되는 기쁨을 누렸다. 한국기원은 2일 윤현석 9단을 포함해 모두 18명의 승단자를 발표했다.

굿모닝 잉글리쉬 <962>

Would you mind changing seats with me? 저랑 좌석 바꾸실래요? A: Excuse me. Would you mind changing seats with me? B: Not at all. A: Oh, thank you very much. B: You're welcome. I prefer an aisle seat.

오하오우 니혼고 <962>

佐藤(さとう)さん電話(でんわ)取(と)ってください。 사토씨 전화 받으세요 A: 佐藤(さとう)さん電話(でんわ)取(と)ってください。内線(ないせん)一番です。 B: どの佐藤(さとう)ですか。3人いるんですけど。 A: あっ、すみません。陽子(ようこ)さんの方(ほう), 同(おな)じ性(せい)の人が3人もいと、紛(まぎ)らわしいなあ。 B: これからは、フルネームで呼んでいただけませんか。

니하오 풍구워 <152>

可是你明天干什么? 그런데 내일 뭐해? A: 你在看什么书呢? Ni zai kan shenme shu ne? B: 我刚刚的小说, 一借就在看。 Wo gang gang de xiaoshuo, yi jie jiu zai kan. A: 是吗? 可是你明天干什么? Shi ma? Ke shi ni mingtian gan shenme? B: 真的吗? 我也想去。我很期待。 Zhen de ma? Wo ye xiangqu. Wo hen qi dai.

한자 이야기 <579>

法古創新(법고창신) 본받을 법, 옛 고, 만들 창, 새 신 법고창신(法古創新)은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創造)한다는 뜻으로, 옛것이 바탕을 두되 그것을 변화하여 새 것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Advertisement for '더마플라스트 밴드' (Derma-Plast Band) featuring a woman's face and text describing its benefits for skin care.